

의정소식



고양시의회, 개원 30주년 기념행사 열어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가 4월 15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고양시의회 현역의원, 고양시장, 의회사무국 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시의회 개원 3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1991년 제1대 의회 개원부터 현재까지의 의회 변천사 홍보 영상 상영과 기념촬영의 순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이하여 시민들은 앞으로도 고양시의회가 주민의 대표자이자 행정의 감시자로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주민을 대변하는 진정한 대의기관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으며, 이길용 의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108만 고양시민의 기대와 염원에 부합할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고양시의회,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참석

고양시의회 이길용 의장이 창원시의회에서 개최된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4차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과 의장협의회 실무 TF팀이 참석했으며, 정책지원 전문인력 직급상향과 특례시의회 의원 정수 기준 조정 등 지방자치법 후속법안 제·개정 대응책과 행정안전부장관과 면담 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특례시의회 관한 발굴 공동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하여 연구용역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길용 의장은 "2022년 1월 특례시의회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의장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관계 법령 제·개정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건강상식

화장실 벗어나기 힘든 여름철 설사감염병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 건강상 주의해야 할 것들도 많아진다. 그중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음식물 섭취'. 여름철 흔히 발생하기 쉬운 '설사감염병'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출처: 질병관리청

설사감염병이란?

병원성 세균, 바이러스, 원충에 오염된 물 또는 식품의 섭취로 인해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위장관 증상이 주로 발생하는 질환을 설사감염병이라고 한다. 설사감염병은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 간염 등이 있다. 기온이 상승하는 5~9월에 주로 발생하며, 특히 고온·다습한 여름철 연휴·휴가 기간에는 단체 모임 및 국내·외 여행으로 인해 설사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의 활동이 활발해져 주의가 필요하다.

설사감염병의 원인은?

- 노로바이러스 45%
- 병원성 대장균 9.7%
- 살모넬라균 5.6%
- 캠필로 박터균 4.8%

여름철에 어패류를 섭취할 경우에는 장염비브리오균이, 배추겉절이나 샐러드 등 채소류를 섭취할 경우에는 병원성 대장균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오염된 계란이나 김밥 등 복합 조리식품을 섭취할 경우에는 살모넬라균이 발생하기 쉬우며, 삼계탕·채소류 등의 교차오염일 경우에는 캠필로 박터균이 발생할 수 있다.

설사감염병의 주요 증상은?

하루에 세 번 이상 묽은 변이 나오는 것이다. 하루 중 대변량이 200g 이상일 때 설사감염병으로 진단된다. 노인에게 흔히 나타나는 변실금(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변이 새는 것)이나 가성설사(하루 3~4회 배변하지만, 하루 전체 배변량이 정상 범위에 속하는 것)와는 엄연히 다르며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

설사감염병 예방수칙은?

1. 손을 비누로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는다.
2. 물은 꼭 끓여서 마신다.
3. 육류를 섭취할 때는 반드시 익혀 먹는다.
4. 채소를 세척할 때는 흐르는 물에 최소 3회 이상 씻어야 한다. 🍷